

몽골 배구대표팀 이끌고 광주 온 장지홍 단장·정용하 감독

“32년만에 U대회 출전 목표는 딱 1승”

광주 출신 배구인 선·후배가 몽골여자 배구팀을 이끌고 종합국제대회 첫 승을 목표로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어 화제다.

광주승원여성 체육관에서 고교팀과 연습경기를 가지며 전력을 다듬고 있는 몽골 대표팀은 지난 2007년 창단된 에나프레팀을 이끈다.

지난 3일 입국해 13일간 국내에 머무를 예정인 이들은 선진배구를 체험하며 한수(?) 배워갈 계획이다. 이번 에나프레팀을 이끌고 온 주인공은 장지홍(59) 단장과 정용하(48) 감독, 조신대 체육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에나프레팀을 이끌고 오는 7월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에 참가해 오직 1승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배구대표팀의 U대회 출전은 32년 만에 이뤄낸 경사로 몽골체육계는 물론 국민들도 한동안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었다고 한다.

장지홍 단장은 광양 출생으로 순천 매산고와 조선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전라도 사나이’다. 정용하 감독도 조대부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광주맨으로 국가대표 선수와 여자국가대표 감독 등을 역임한 화려했던 배구스타 출신이다. 이들이 손잡고 몽골배구의 전성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경호실서 20여년간 근무하기도 했던 장 단장은 에나프레팀을 창단한 장본인. 지난 2002년 몽골에 들어가 그림판매 사업을 시작한 그는 5년간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해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배구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배구 황무지’ 몽골에서의 팀 창단은 결코 쉽지 않았다.

훈련장과 배구용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선수 부모들의 반대 또한 컸다고 한다. 하지만 장 단장의 설득과 노력 끝에 지금



오는 7월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비, 광주 승원여성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몽골여자배구대표 에나프레팀. 맨 오른쪽이 장지홍 단장, 맨 왼쪽이 정용하 감독이다.

조선대 선후배들 ‘불모지’ 몽골서 배구 전과

“고향의 따뜻한 정 받으며 훈련...힘 솟아요”

은 경기장 두 곳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무훈에 이전 부모들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 목적으로 팀을 창단했던 장 단장은 U대회 첫 승을 위해 지난해 12월 후배 정용하 감독을 영입했다.

총 12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에나프레팀은 전국대회에서 선발된 정예요원으로 대부분 대학생들이다. 공대·법대 등 소속학과도 다양하고 모델 출신도 있다. 이들은 오전에 수업을 받고 오후에 3시간씩 훈련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오고 있다.

‘몽골판 외국인구단’이라 할 수 있는 에나

프레팀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전력을 쌓아 오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극동지역 대학 생배구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대기업을 토론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엔 한국대통령배 대회에 초청받아 출전하기도 했다.

팀 주장을 맡고 있는 자르갈(센터·71kg·185cm) 선수는 대통령배대회서 국내 프로팀 눈에 띄어 연습생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자르갈 외에도 신장 180cm 이상 이면서 발판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6명이나 더 있다.

장 단장은 오는 2015년 U대회 광주 유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U대회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몽골대학올림픽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광주 유치 지지 선언을 했다”면서 “몽골서도 지지를 보내는 만큼 반드시 광주에서 개최될 것 바란다”고 밝혔다.

몽골 배구 활성화에 선수가 역할을 하고 있는 장 단장은 지금 몽골 14개 지역팀에 배구 공과 유니폼 등 용품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꿈나무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에나프레팀의 광주 전지훈련은 장 단장의 오랜 친구인 이상태 광주동부교육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졌다.

장 단장은 “오랜만에 고향의 따뜻한 정을 받으니 힘이 난다”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에나프레팀은 앞으로 서울 일신여상·세화여고팀과 연습경기를 가진 후 오는 17일 출국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

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합평다이내스티서 개막

총 108명 참가 3일간 열전

한국여자프로골프 2009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시즌 개막전인 1차 대회(총상금 2억원, 우승상금 3천6백만원)가 7일 4계절 양산디 골프장 합평다이내스티CC에서 개막된다.

이번 대회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그린과 페어웨이 컨디션이 최상인 합평다이내스티CC(파72·6천297야드)에서 7일 프로양대회에 이어 8~10일까지 3일간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 106명·아마추어 2명 등 총 10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신지애(21·미래에셋)에 이어 국내 2인자에 머물렀던 서희경(23·하이티)이 ‘내가 국내 1인자’임을 입증할 태세이다. 지난해 신지애와 투어를 양분했던 서희경은 올시즌 4개 대회 중 2개를 독식하며 승률 5할을 만들었다. 이런 기세라면 지난해 자신이 만들어냈던 6승은 물론, 지난 2007년 신지애가 기록했던 시즌 9승도 노려 볼지하다.

서희경은 지난해 생애 첫승을 거둔 ‘하이원컵 SBS 체리티 여자오픈’부터 3주 연속 우승을 거두며 신데렐라로 탄생한 바 있다.

올해 역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까지 우승한다면 지난해처럼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하게 된다. 한 선수가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2년 동안 한 적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한편, 올시즌 3개 대회에 참가해 준우승만 2차례 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보경(23·던롭스리슨)이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안선주(22), 이보미(21·이상 하이마트), 최혜용(19·LIG) 등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대거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또한 현재 신인상 포인트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양수진(18·뱅크)을 비롯한 특급 신인들이 생애 첫 우승을 향한 무한도전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KLPGA 주관방송사인 Xports와 J골프를 통해 전라남도 생중계하며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투미디어를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한다.

7일 열리는 프로양대회는 프로 40명과 초청자 120명 등 총 160명이 참가한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양대회는 서희경·안선주·유소연(하이마트)·최혜용·김하늘(Fnc코오롱)·오채아(하이마트)·김보배(B2골프)·홍란(번식웨어) 등의 프로선수들이 참가한다.

/서승원기자 swseo@



지난해 합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광주시청 김덕현 ‘금빛 도약’

종별육상 세단뛰기 16m73 1위

한국육상 세단뛰기 기대주 김덕현(광주시청)이 금빛도약을 펼쳤다.

국가대표 김덕현은 6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종별육상경기대회 마지막날 남자일반부 세단뛰기 결승에서 16

m73을 뛰어 고대영(황성군청·16m13)과 송진현(고양시청·15m40)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일반부 400m 계주·100m·세단뛰기에서 우승,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육상의 강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편 트랙 최장거리 10,000m 남자대학부에서는 황준현(한국체대)이 30분 5초 7을 기록하며 30분5초77에 그쳤다.

전국 중·고·대학·일반부 2천489명의健儿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단 1개의 한국신기록도 달성하지 못한채 막을 내려 아쉬움을 더했다.

그나마 고교 스피린터 김국영(광천정보산업)과 박봉고(경북체고)가 각각 100m와 200m에서 10초54와 21초19로 대학,일반부에 필적하는 기록을 내 가능성을 보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신촌스포츠

7일(목)

▲08/09 NBA 플레이오프 서부컨퍼런스 4강 2차전(휴스턴 : LA레이커스)(11 : 3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삼성 : 한화)(18 : 15·Xports) <KIA : 히어로즈>(18 : 20·MBC ESPN) <SK : 롯데>(18 : 20·KBS n스포츠) <LG : 두산>(21 : 00·SBS스포츠)

전국 장애학생들 전남서 ‘축제 한마당’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여수와 목포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풋볼·농구·배구·보치아·수영·씨름·육상·축구·탁구·e스포츠 등 11개 정식종목과 실내조정 1개의 전시종목으로 16개 시·도 2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장애 우수선수를 발굴과 학교체육 활성화, 장애학생들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대회에 전남은 8개 종목에 123명(선수 75명·임원 48명), 광주는 10개 종목·88명(선수 63명·임원 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서승원기자 swseo@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1 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매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소재지, 면적, 총/중수, 감정가, 최저가.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투숙, 상가주택, 토지, and 농지.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 062) 227-9500

인기폭발 신제품!!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약, 주사 링, 펌프가 아닙니다. 아내가 개발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신제품 기구입니다.